

# 표류하는 국민의힘... 총선 참패 사고 계파 갈등·지역 대립

### 영남권 당선인들과 수도권 낙선자 그룹 사이 파열음 계속 당 대표 선출 '당원투표 100%' 경선 룰 놓고 갈등도 커져

4·10 총선 참패 속에서 국민의힘이 당 안팎 수습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두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이불로 덮어두는 격'이라는 비판을 내놓는가 하면 아예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말고 '혁신형 상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낙선자들과 간담회 후 "원의 위원장들은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이 많았다. 당선인 총회에서는 '실무형 비대위'를 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며 비대위 성격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 유보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윤 권한대행은 오는 22일 재소집한 당선인 총회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및 당 쇄신 방향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남권에 주로 포진한 당선인과 수도권에 많은 낙선자 그룹 사이의 파열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처음 만난 당선인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로 열싸인고 '생환'을 자축한 장면을 두고 수도권 낙선자들은 "역장이 무너졌다", "같은 당 맞느냐" 등으로 비난했다.

일부 당선인들이 '21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84석)보다 6석은 더 이겼다'라거나 '전국 득표율

로는 5.4%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등 분석을 내놓는 데 대해서도 낙선자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대립이 차기 당권 레이스와 맞물려 지역·세력 갈등으로 발전할 조짐도 보인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수도권 당선인·낙선자들과 함께 패인 분석 세미나를 진행하며 '영남 2선 후퇴론'을 거론하자, 대구시장 출신의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이 페이스북에서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 와서 표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 참 경우도 없고 모욕적"이라고 각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당 대표 경선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자는 비주류와 지난해 자신들이 주도한 '당원투표 100%' 경선 룰을 고수하려는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의 갈등도 커지면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22대 국회 운영의 전권을 사실상 모두 야권에 넘겨준 채 개헌·탄핵 저지선만 가까스로 확보해놓고도 내부 갈등만 키우고 있는 현 상황을 두고 당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이 흡사 '무정부' 상태에 빠진 모습"이라며 "선거 패인 진단도 제대로 못 했는데, 위기 수습은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죄송합니다” 낙선자 사죄 인사 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난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카메라를 향해 사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갤럽,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3%

### 총선 직전보다 11%p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포인트(p) 하락해 현 정부 출범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였다.

총선 전 실시된 직전 조사(3월 26~28일) 대비 국정 평가는 11%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0%p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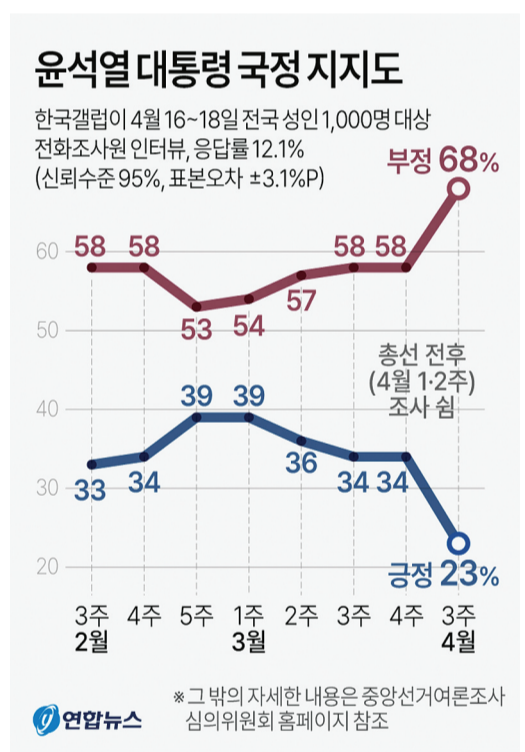
긍정 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기존 긍정 평가 최저치는 취임 첫 해인 2022년 8월 24%였고, 부정 평가 최고치는 같은 달 66%였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 '외교' (이상 13%), '경제·민생' (6%), '주관·소신' (5%), '결단력·추진력·독심' (4%)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물가' (18%), '소통 미흡' (17%), '독단적/일방적' (10%), '의대 정원 확대'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지질 부족·무능함' (이상 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 (이상 3%)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4%, 개혁당 3%, 녹색정의당·자유통합당 1%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1%다.



이에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 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27%, '잘못하고 있다'는 64%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4.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한동훈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

### 페이스북 첫 공개입장 “시간 가지고 성찰하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10 총선 이튿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첫 공개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사심 없이 신중하기만 하다면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주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자,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저의 패배이자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총선 뒤) 열혈이 지났다. 실망하시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시죠. 결국 잘 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정치 복귀 가능성이 열려있던 한 전 위원장이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에는 일단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내일이 빛나는 기희도시 광주

## 시민 소통 플랫폼 광주온(ON)

" 시민 모두의 의견을 묻고 듣기 위해 소통을 ON 합니다."

### 물는다

시민 정책참여단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광주시가 설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설문참여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시민 정책참여단

만14세 이상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 가입하기 : 광주온(ON) 홈페이지 또는 QR코드 스캔

### 듣는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고! 공감하여!!  
정책을 만들어 갑니다.

제안내용 : 불편·고충사항 해결방안, 정책아이디어 등

시민권익위원회

제안요건이 충족(공감50)되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심의하여 시에 정책권고합니다.  
※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안 기다립니다.